『기독교사회윤리』 제48집
(2020) 37~62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재정향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윤리적 생산과 소비, 다문화 선교의 가치 제고

김창운(대전신학대학교 교수)*
이장형(백석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팬더믹 상황의 전개와 기독교
1. 국제적 교류의 단절
2. 선교의 급속한 위축

III. 세계화 담론의 재고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1. 생태계 중심의 사고 회복
2. 윤리적 생산과 소비의 제고

IV. COVID-19로 인한 단절과 선교 재정향
1. 선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문화 이해
2. 문화지능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2

* 주저자, his-possibility@hanmail.net
** 교신저자, janghyung@bu.ac.kr

www.kci.go.kr

• ABSTRACT •

Reorienting from Globalization to Localization: Enhancement of Ethic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Missional Strategies under the Crisis of COVID-19

Prof., Kim, Chang Wun(Daejeon Theological University)
Prof., Lee, Jang Hyung (Beakse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spond to the rapid skepticism of globalization, as a joint work between Christian ethics and missiology to seek an appropriate alternative to the missional situation in crisis, and an ethical task to seek the possibility of coexisting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under this crisis of Covid-19. For the recovery of ecology-centered think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humanity and ecology is suggested, and it is proposed that globalization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restore the values and ethic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ddi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rapid shrinkage of Christian missions, multicultural missions are suggested as a worthy alternative i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still subject to discussion as vague concepts. For this purpose, the theory of the cultural quotient (CQ), which makes it possible to raise intelligence of multiculturalism of Korean people, is proposed as a developmental tool. In other words, to reorient the values and directions of multicultural missions, the tool can offer systemic understanding and effective applications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should not be regarded as a disaster from God, but as an opportunity for reflecting and reorienting the direction of life caused by human unethical life and desire.

Key words: Globalization, COVID-19, Multiculturalization, Product and Consumption, Culture Quotient, Intercultural Values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1]가 팬더믹(Pademic, 지구적 유행병)이란 말 그대로 지구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대(對) 사회적 역할과 선교적 책임에 대한 도전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단지 교회의 회집 인원이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외적인 차원을 넘어서 시민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예배 집회의 절실한 필요성,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 체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가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답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단순하게 근본주의적 신앙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감염병의 확산을 해석하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시대의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특히 지난 세기부터 시작된 세계화 현상과, 그로 인해 가속화 된 COVID-19의 팬더믹 상황을 접하면서, 성찰적 정신으로 시대적 방향을 제시할 책임을 갖는다. 즉, 사회의 존속을 위한 생태적 가치인 '생산과 소비' 문제, 그리고 기독교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선교적 책임'에 대하여 융합적 토론의 필요성을 느낀다. 어떻게 이 사회와 기독교의 본질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필자들은-기독교 윤리학자와 선교학자로서- 팬더믹 상황으로 인한 사회와 기독교의 위기를 토론하며 각각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태적 가치와 선교로 보고 그 방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해 세계화로 달려가던 열차가 국가 간의 봉쇄와 단절로 지역을 향해 회귀되어야 함을 전망하며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천착하고자 한다. 윤리학적 관점에서 COVID-19를 세계화의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COVID-19로 표기함.

www.kci.go.kr

산물 중 하나로 바라보며 건전한 지역화를 위한 윤리적 생산과 소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현(現) COVID-19 상황이야말로 기독교 다문화 선교를 위한 전환점의 기회임을 전망하고자 한다. 그동안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 윤리적 소비와 생산은 윤리 운동가들의 적실성 없는 구호로 치부한 경우가 많았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구 공동체는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가치지향적인 생산과 소비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교적 위축 상황을 극복하고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문화사회화에 대한 막연한 회의적 시각을 넘어서서 이미 한국 사회가 다문화에 접근한 사회가 되어 있음을 재인지하는 정교한 분석과 이행과정이 요구됨을 설득하며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II. 팬더믹 상황의 전개와 기독교

COVID-19 상황을 맞아 기독교의 신학적 분석은 다양한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대유행병과 기독교』(황을호), 『교회통찰』(안명준 외),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교회』(임덕규) 등 적지 않은 저술들이 앞다투어 출판되었다. 그런데 대부분 대유행병에 대한 역사 속의 이야기들, 현 전염병에 대한 설교적 해석 등에 집중되어 있어, 문제의 원인과 적실성 있는 대안 제시는 빈약하다. 본 논문은 COVID-19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와 기독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넘어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윤리의 회복 및 선교 전략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초반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국이 고립과 봉쇄 현상이 벌어졌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에 제동이 걸렸다. 세계의 단일화라는 현상이 전염병의 공유라는 현상까지 낳은 것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두려움을 느끼

www.kci.go.kr

게 되었다. 2020년 10월 현재, 전 세계 COVID-19 확진자는 약 4천만 명에 도달하면서 팬더믹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각 국가들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봉쇄정책들을 수용하면서, 국가 간 경제적 교류가 현격하게 줄었고 인적 이동이 통제되었다. 봉쇄는 고립을 낳았고 고립은 불안을 낳았다. 염려대로 산업이 위축되어 경제상황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팬더믹 상황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않는다. 세계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1. 국제적 교류의 단절

무엇보다 COVID-19의 확산은 세계화에 제동을 걸어, 사람들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불가피한 정치, 경제 교류 등 최소한의 인원들만 국경을 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관광객들과 단순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거의 멈춘 상태이다. 2020년 9월 15일 발표한 관광통계에 따르면, 최성수기인 7월 내국인 출국은 전년 동기대비 97.5%, 외국인 입국은 95.8%가 감소되었다.[2] 인적 이동의 단절은 경제에도 그대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유입이 크게 감소하여 농어촌 소규모 공장, 농어촌 지역에서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3단계를 오르내리면서 오프라인의 회집이 단절되었다. 학교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각종 종교행사나 학술회의나 기념식과 회의들도 회집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 행사와 유흥업소와 음식점 커피숍 등 위락업소도 문을 닫거나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여 사람들이 모임이 크

2) 이은지, [마케팅 리포트] 7월 출입국자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절망적, e-여행신문,(2020.9.21.), http://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316, 2020년 10월 1일 접속.

www.kci.go.kr

게 단절 혹은 위축되었다. 이런 환경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고 조소적인 말을 확산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며,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속담의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2. 선교의 급속한 위축

COVIOD-19는 기독교 선교에 새로운 도전을 주었다. 모든 종교기관 중 특히 기독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과 비대면 예배로 인해 모임 인원이 급격히 감소되었고 각종 집회들이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예전의 인원들이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해서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긍지를 가져왔던 해외 파송 선교사들 중 상당수가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로 귀국을 했고, 언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여 사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3] 선교사의 선교지 방문은 물론 그동안 활발했던 각 교회 단위의 선교지 방문도 불가능해졌고,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교사 추방 이후 COVID-19로 인해 선교사들의 철수 상황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귀국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기에 고국에서 지낼 곳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각 교회에서도 재정난을 겪으며 선교예산을 줄이고 있는 형편이라 선교 사역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제까지 급속히 확산되던 단일한 지구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지역 혹은 자국 중심적인 생각으로 회귀

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선교부의 보고에 의하면 그간 해외 선교사가 93개국 816가정 중 160여 가정이 귀국을 하여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선교사들을 추방하였고, COVID-19 후에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

www.kci.go.kr

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화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적인 논변들이 더해질 경우 급속한 선교 상황의 변화가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팬더믹 상황 속에서 세계화에 대한 감성적 비판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지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많은 혼란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윤리담론과 선교적 전략은 어떤 가치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적실성 있는, 대안이 되는 답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다.

III. 세계화 담론의 재고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1. 생태계 중심의 사고 회복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왔다. 대한민국 사회도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였다. 세계의 국가와 국가 간 경계가 약화되었고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가 상호 의존적으로 변모되었다. 결국 세계화는 경제적 세계화로써 국제 사회의 개방화를 가져왔고 국제 무역과 국제 투자가 급증하였으며, 노동 인구의 이동과 이주민 증대로 사회의 다문화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가 이루어진 원인은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로 시작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경제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전 세계 기업의 경쟁으로 어어지게 되며 거대 기업들 간의 인수합병으로 자본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거대금융 자본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4] 물론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4)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AGAPE문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5(2017), 135.

www.kci.go.kr

양하다. 이러한 세계화의 결과로 빈곤이 감소되었다고 주장하는 편과 빈곤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는 확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성장률은 1980년 이후 더욱 하락하였는데 그 중 후진국일수록 더욱 하락률이 커졌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성장률은 선진국들보다 높아졌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어 선진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5)]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48년 제1차 총회인 암스테르담 대회에서 경제 문제를 의사 일정에 올렸고 세계개혁교회연맹(WARC)은 2004년 아크라신앙고백에서 신자유주의와 환경파괴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보았다. WCC는 2006년 총회에서 아가페 문서(AGAPE)를 선포하여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나아갈 길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WCC 대회에서 "선교문서"를 선포하며 아가페 문서에서 선포한 경제의 문제를 재확인하였다. 그 중 한 항목을 읽어보자.

> 108.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과 정의의 가치에 기초해 있으며, 변혁적 선교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우상숭배에 저항해야 한다고 확언한다. 경제 지구화는 사실상 생명의 하나님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신, 돈으로 대체하였다. 그것은 부당한 부의 축적과 번영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는 그러한 우상숭배적인 비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반-문화적이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교는 생명, 정의, 평화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과 자연에게 불행과 고난을 가져오는 이러한 거짓 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는 탐욕의 경제를 규탄하고 사랑과 나눔과 정의의 거룩한 경제에 참여하는

5) Brano Milanovic, "Two Faces of Globalization: Against Globalization as We Know It," *World Development* Vol. 31, No.4(London: Elsevier Science Ltd., 2003), 663-676.

www.kci.go.kr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6]

이 선교문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우상숭배에 저항"해야 함을 생명의 하나님이 경제의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선교는 탐욕의 경제를 규탄하고 사랑과 나눔과 정의의 거룩한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인 '하나님의 경제'는 온 지구 공동체를 위한 경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우선 돌보는 생명과 정의, 평화라는 특징과 함께 지구의 전 생명체에 대한 은혜의 경제가 요청된다. 이런 면에서 세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의 기형을 이루고 생태계가 파괴된 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구 생태계 파괴에 대한 깊은 반성적 성찰과 함께 이제 정복적 세계관을 지양하고 인류 전체가 지향해야 하는 생태계 중심 사고의 회복과 확산이 필요하다. 오늘날 COVID-19에 의한 팬더믹의 원인은 세계화가 추진되던 상황 속에 인간의 이기주의와 인간중심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번영주의는 현재의 이상기후와 다양한 생물종들의 변이와 멸종뿐만 아니라 COVID-19를 전세계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용범에 의하면, 인류는 이제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로 대표되는 그동안의 창조세계를 도구적인 가치로만 인정했던 인간사회 중심적이던 사고를 성찰해야 한다. "지구에서 더 이상 인류는 하나의 구성원이 아닌 지구와 대적하고 지구 전체의 지질 역사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악을 행하는 행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7]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는 인류와 생물종간에 위치하는 동반자의 윤리를 강

6) WCC문서, "WCC 선교문서" 선언문 번역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연구원 제공. (2012.11.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6649723, 2020년 10월 15일 접속.

7) 박용범, "COVID-19 이후 창조 의식의 전환: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신학과 사회」 34(2020), 129-159.

www.kci.go.kr

조한다. 그녀의 동반자 윤리는 "인간과 비인간 공동체를 위한 최대의 선은 서로 간에 살아있는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인류가 절제를 통해 긴급한 필요를 채우되 생태계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태중심적 윤리와 인간중심적 윤리를 통합'하는 것이다.[8)]

COVID-19를 맞닥뜨린 시점의 인류의 과제는 새로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신속히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지구 환경의 생태적 재난을 바라보면서 인류 외의 생물종까지도 배려하는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생태적 창조의식을 향한 전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경제를 회복할 수 있으며, 지구 생태계와 상호동반자적 차원에서의 상호관계와 상호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기독교적 책임윤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팬더믹으로 인한 국가 간 단절은 단순히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넘어서 실현가능한 윤리의 확산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2. 윤리적 생산과 소비의 제고

서구 거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세계화는 COVID-19로 제동이 걸리면서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기회가 되고 있다. 효율중심으로 움직이던 세계화의 흐름에서 이제는 가치와 윤리를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세계화는 효율적인 대량생산과 저비용을 통해 소비의 가속화와 대량화를 낳았다. 세계화를 통해 지역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재화가 공유되었고 가장 저렴한 비용의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혹은 나라만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대 기업들은 대량 물류

8) 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허남혁 역. 『래디컬 에콜로지』(서울: 도서출판이후, 2007), 131.

www.kci.go.kr

를 생산하고 공격적 광고로 시장을 잠식하였다. 소비자는 거대자본의 대량소비를 조장하는 독점적 광고 문화에 동화되었다. 대형 마켓에서 대량의 물건을 구입하고 사치 소비가 대량화되었다. 소비가 미덕이 되고 미디어는 끊임없이 소비를 충동해왔다.

물론 세계화에 대하여 능동적 수용성을 피력한 신학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막스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현대 신학이 분배상의 평등의 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기업의 생산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9] 그러나 세계화의 유용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약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장형은 분배상의 평등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 이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 특성이 있으므로 기업 또한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 있음을 바라보며, 기업체가 지닌 인격성과 윤리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도덕적 주체로서의 기업으로서 사회를 선도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10]

이런 면에서 생산뿐 아니라 소비 또한 윤리적 가치를 깊게 고려해야 한다. 조용훈은 소비자들의 가치 전환이 필요한 때임을 주장한다.

> 소비사회에서는 소비자의 권한과 더불어 그 책무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 소비자 윤리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경제합리성을 추구하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에서는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자연환경과 동물, 지역공동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요청한다. 말하자면, 윤리적 소비활동에는 경제합리성을 넘어서 지속가능성, 지

9)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7), 118.

10) 이장형, "세계화의 능동적 수용과 기독교적 책임-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15(2008), 50.

www.kci.go.kr

역공동체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가치들이 내포되어 있다.[11]

이제 소비자들은 지속가능성이 있는 소위 '녹색소비'와 지역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지역소비', 공정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정무역'의 소비를 통한 윤리적 책임에 동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 행동에도 생각과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기독교가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계와의 동반적 관계 속에서, 개인은 '나'만으로 살 수 없으며, 공동체 의식을 통해 나를 살리는 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소비하며 무분별하게 석탄 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왔다면,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 관련 소비에 대해서도 생태학적 질문이 필요하다. 아미쉬 공동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 공동체의 파괴 때문이다.[12] 무분별한 번영주의와 이기적 경제 원리를 극복하고 생태학적이고 공동체적 소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할 때이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에 대한 가치와 윤리도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생태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책임적 윤리를 세워야 할 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더믹은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발명을 통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증가. 미세먼지 분진 등의 대기오염, 식수와 바닷물의 오염, 가뭄으로 인한 식량의 고갈 등이 발생하면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야기된다.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며 높은 울타리를 쌓고 경비를 강화한다고 해서 장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동안 지속가능성, 생태와 환경 문제 등을 제시하면 비효율적 감상주의 혹은

11) 조용훈,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기독교사회윤리」27(2013), 369~398.

12) 이장형. "아미쉬 공동체의 윤리 분석: 기독교 종교성, 소비문화, 예배갱신, 평화론 모색,"「기독교사회윤리」42(2018), 179~209.

www.kci.go.kr

발전에 대한 딴지걸기로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소수의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처럼, 환경 문제는 그 영향을 모두가 함께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생산 행위는 사회적 권력의 체계 가운데 무비판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자기 성취의 인격적 지평에서 평가되어야 한다."[13] 모든 경제적 행위가 생존을 위해 윤리적 의미없이 불가피하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을 이루며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의미를 성취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IV. COVID-19로 인한 단절과 선교 재정향

1. 선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다문화 이해

한국기독교는 COVID-19로 인한 해외 선교의 위축을 맞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사실 지금은 '세계화는 무엇인가'보다 '세계화에 우리는 어떠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며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그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세계화 과정의 걸음을 멈추고 단절된 상황에서 냉철히 물어야 한다. 선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해외로 나갔던 경우는 없었는가, 지역교회들은 무분별하고 경쟁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는가, 선교 현장에서 적실한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동안 교회와 선교사들의 노고에 대한 찬사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COVID-19를 맞아 미래를 위한 선교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성찰과 함께 고뇌어린 점검을 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파송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기독교 선교의 대안을

13) 황돈형. "부를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의 기독교적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56(2019), 223-267.

www.kci.go.kr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놓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세계화가 이 땅에 선물로 준 것이 있다면 해외에서 온 수많은 이주민들이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원론적 이해로써 몇 가지 정책적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로, 이는 다문화주의가 크게 논의되기 전에 미국에서 사용되던 용어이다. 한마디로 다양한 문화 집단이 각자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문화 동화(Cultural assimilation)로써 이민자가 주류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에 동화되는 것을 뜻한다. 다른 용어로 문화적 용광로(Melting pot) 이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강력한 주류의 문화가 용광로처럼 이주민의 문화를 녹이듯 동화시키는 정책을 뜻한다.[14] 근래 미국의 경우는 샐러드볼(Salad Bowl) 정책을 취하여 이민자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볼(Bowl)에 한데 어우러지는 연방제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건전한 다문화 사회의 모델로써 헨리 게이츠(Henry L. Gates)의 주장에 의하면 문화적 정체성이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생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갈등과 절충, 자기 형성 및 재형성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15]

나아가 바바라 로고프(Babara Rogoff)와 존 베리(John Berry)는 다문화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연구하며 문화정체성을 확고히 유지하며 타문화와 역동적 교류를 하는 이들이 상호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연구를 보여준 바 있다.[16] 즉 문화

14) 한경구,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다문화사회의 이해』(서울: 동녘, 2008), 91.

15) Henry Louis Gates, Jr.,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 1993,11.

16) Babara Rogoff. "Children's guided participation and participatory appropriation in sociocultural activity" In Robert H. Wozniak & Kurt W. Fischer, ***Development***

www.kci.go.kr

정체성이란 단일문화 속에서 고수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갈등과 대화를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은 문화적 접촉을 통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타문화의 접촉을 통하여 발달했던 문명의 대표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2013년 WCC 〈선교문서〉는 다문화 상황의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70. 오늘날 광범위한 규모의 세계적인 이민 현상은 교회가 아주 실천적인 방법으로 일치에 헌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는 말씀을 듣고 있다. 교회는 이민 공동체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또한 문화 간의 교류를 위해 의도적인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교회는 인종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선교를 섬기는 존재가 되도록 부름 받았고, 다양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동 증언을 하는 다문화 목회와 선교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은 이민정책에 대해 정의를 옹호하고,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 어린이, 미등록노동자는 모든 상황의 이주민들 사이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다.[17]

COVID-19는 세 면이 바다로 둘러있는 대한민국의 해외 통로를 닫아버렸다. 그렇다고 기독교의 핵심 목표인 선교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땅에 이주한 250여만 명의 이방인들은 해외로부터 찾아온 "땅 끝"(행 1:8)이다. 이제는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

in context: Acting and thinking in specific environmen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3), 121-153. John W. Berry.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New York: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7) WCC 문서. 앞의 자료.

www.kci.go.kr

지역 속에 나그네들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해외로 향하던 선교의 눈을 이들에게 돌린다면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선교 기회가 된다. 나그네를 손님 및 이웃으로 대하도록 했던 성경의 정신(출 23:9, 히 13:2)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한 선교 명령(마 28:19-20)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선교를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반감 혹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여성복지부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주민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가장 큰 내용 중 하나가 문화와 종교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미풍양속을 잃어버리거나 우리의 종교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포비아(Islam Phobia)란 말도 생겨났다. 이슬람의 공격적 포교에 대한 우려와 후세들이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이슬람을 올바로 연구하며 이슬람권 선교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들이 이 나라를 동경하여 성공(Korean Dream)을 이루기 위해 왔다면, 그들의 열려있는 마음에 기독교의 사랑을 담아줄 수 있는 호기인 것이다. 무슬림을 포함한 이(異)민족의 문화와 종교는 기독교에 긴장의 끈을 다시 묶도록 해주는 인생 파트너요, 다름으로 인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성장의 도우미들이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다.[18] 타문화를 만나는 것은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회이다.[19]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적 관점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이민족을 바라보며 선교적 관계와 대화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

18) 김동문. "이슬람 바로 알기 논의, 괴담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야 한다,"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2008.12.10.).

19) 문화인류학적 관용어로 "타문화는 자문화의 거울이다" 참고 한경구 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서울: 일조각, 2006), 5.

www.kci.go.kr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의 상흔을 가다듬고 있을 즈음인 1958년, 영국의 매리슨(G. E. Marrison)은 이슬람 선교와 연구가로서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의 대안으로 중요한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우리(기독교)의 신학을 책의 학문적인 용어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내면적 구조와 선교적인 전략의 외면적이고 보편적인 책임과 관계 안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자신이 이슬람의 도전 앞에서 선교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의 풍부함(fullness)을 재정립"하도록 권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독교 내에 만연한 세속화, 냉담함, 분파주의, 개인주의적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 평화와 공존은 현 시대의 핵심 가치이다. 각종 통계와 연구가 전망하듯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더 광범위한 다문화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평화와 공존의 수용성과 인권적 배려의 시민 의식이 제고되어야 함을 뜻한다.[21] 기독교의 선교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공동체는 자타 간의 관계성의 화해자와 중재자로서 다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문화지능 강화를 통한 인식 개선

지난 세기 말부터 가속화 된 세계화의 현상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문화화(多文化化, Multiculturalization)이다. 한국 국내의 이주민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 49,000명이었던 외국인 인구가 2011년에는 약 139만 명으로 급증하였다.[22] 이어서

20) G. E. Marrison, ***The Christianity Approach to Islam,*** 임흥빈 역, 『기독교와 이슬람』(서울: 아세아신학사, 1991). 91-95.

21) 임성빈, "다문화사회와 교회의 역할 모색- 인권과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제공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305-333.

22) 황미애 외,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생의 법적 관용성: 다문화 법교육에의 함의," 「시민교

www.kci.go.kr

2013년 조사에서는 150만 1,7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23] 2016년에 들어서서는 205만여 명이었고, 2018년 조사에서는 236만 7,607명, 2019년 최근 조사에서는 2,524,656명을 기록하고 있다.[24] 어느덧 5천만 국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국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25] 이제 한국은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재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등을 다루었다. 그간 다문화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은 그간 개선된 면이 있으나 최근 다소 정체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성인)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2015년 54점에서 2018년 53점으로 하락하였으나, 청소년은 2015년 67.63점에서 2018년 71.2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6] 청소년들의 이민족에 대한 수용지수가 상승한 면에서는 희망적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에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주민과의 관계 증가 및 교육 참여 활동"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이들은 청소년 72.55점, 성인 57.70점으로, 미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청소년 70.58점, 성인 52.57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상호

육연구」 45-1(2013), 172.

23) 송영헌, "다문화 사회의 법제와 인권 패러다임," 「법학연구」 24-1(2013), 48.

24) e-나라지표, (2020.7.24.), 외국인체류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6, 2020년 9월 20 접속.

25) 황미애 외, 앞의 논문, 172.

26) 여성가족부,(2020.6),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0) 2020시행계획,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3ff88a947b3a40fcb5d1cd7e4df7d992.pdf&rs=/rsfiles/202011/2020년 9월 30일 최종 접속. 8.

www.kci.go.kr

존중과 포용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다문화 가치” 확산을 위하여 (1) 다문화 가족이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활동에 참여를 확대하고, (2) 문화 수용성 교육을 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군인, 교원 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할 것과,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위해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계획으로 편성하고 있다.[27]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상당 부분 선진화되고 있으며 이주민들에 대한 상호존중과 문화포용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적용되는 법적 대상은 ‘다문화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제2조)이다. 전체 33만 가구 101만 명의 가구원에 이에 해당된다. 즉, 다문화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150만여 명의 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보다 포괄적인 인권적 보호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하며 나아가 사회 저변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범죄율 상승에 대한 우려, 둘째는 국민정체성의 문제, 셋째는 고용의 기회에 대한 우려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다문화교육’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이들과 받지 않은 이들의 차이가 현격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조사 결과 다문화 교육과 이주민 청소년들과의 접촉과 관계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요인이기 때문이다.[28] 이것은 사회 저변의 변혁을 위한 과제요 기독교의 숙제

2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위 자료. 2020년 9월 30일 접속. 9.

www.kci.go.kr

라고도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필수적 목표는 문화수용성이요 이를 위해서는 문화지능의 진단이 필요하다. 금세기 들어 세계가 다문화화 되면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는 문화 지능(Culture Quotient, 이하 CQ)은 브룩스 피터슨(Brooks Peterson)에 의해 제창되었고[29], 리버모어(David Livermore)에 의해 이 네 가지 요소의 모델로 구체화 되었다. 즉 "동기(Drive)CQ, 지식(Knowledge)CQ, 전략(Strategy)CQ, 그리고 행동(Behavior)CQ"이 주요소이다.[30] 나아가 이 지능에 대한 측정 도구로 미시건 대학교의 린 밴 다인과 싱가폴 난양공대의 순 앙이 실험 테스트를 제작하였다.[31] 그런데 이 지표는 영어권 지역의 문항이고 서구적 시각이며 성인 회사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이므로 우리 문화와 연령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32] 이러한 문화지능 이론을 한국사회, 특히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문화지능을 강화하고 다문화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28) 조윤제,(2019.4.17), [승인통계_최종보고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 2010. 9.20 접속.

29) Brooks Peterson. ***Cultural Intelligence***. 현대경제연구원 역.『문화지능』(서울: 청림출판, 2006).

30) David Livermore. ***The Cultural Intelligence Difference***. 홍종열 역.『문화지능CQ 글로벌 소통의 기술』(서울: 꿈꿀권리, 2016), 299-312.

31) Christopher Ealey P., Soon Ahg & Joo-Seng Tan. ***CQ: Developing cultural intelligence at work***. 박수철 역.『CQ 문화지능 - 글로벌시대 새로운 환경을 위한 생존전략』(서울:영림카디널, 2007).

32) 우리나라에서는 홍종열, 이신전의 문화지능과 상호문화 능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신전. "문화지능이 이문화 적응, 해외 체류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4(2014), 422-429. 홍종열. "상호문화능력으로서 문화지능의 개념에 관한 고찰,"「문화산업연구」13(2013), 69-76. 상호문화에 대해서는 필자의 졸고를 참고하라. 김창운,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선교신학적 방향: 상호문화적 변화,"「선교신학」25(2010). 287-316. 김창운, "아브라함 설화 속에서 바라보는 상호문화적 변화 이야기: 다문화시대 기독교적 가치관 모색을 위하여,"「선교와신학」45(2015), 47-74.

www.kci.go.kr

V. 나가는 말

스택하우스의 지적처럼, 세계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개방정책이 지구촌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면이 있었고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원활한 교통수단을 통해 값싼 소비재들의 생산과 유통이 빈국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적 개방정책이 승자 독식의 경제구조를 가속화 했고 지역적으로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대규모 생산 공장 위주의 산업과 다양한 교통문명은 지구촌 환경의 파괴라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세계화라는 화두가 절대가치적 모토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이 소외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지구 공동체는 세계화라는 무대에서의 선두를 점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던 지역단위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며, 결국 많은 가치와 윤리를 놓치는 면이 있었다. 세계화에 대한 반성적 시작은 국수적인 지역화로의 회귀를 뜻하는 철지난 논의로 치부되기 쉬웠다. 그런데 전세적인 COVID-19 팬더믹은 이러한 윤리적 사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COVID-19 판데믹 앞에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고자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과 의료진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지역과 환경을 지켜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COVID-19로 인해 세계화의 거대한 조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생겨났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의 세계화가 탈지역화를 초래했다면 세계화의 제동 앞에서 지역의 문제를 의미 있게 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급속한 회의적 시각에 대응하며 지역화로 회

www.kci.go.kr

귀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성찰적 논의로써 윤리적 과제와 선교에 대해 적실성 있는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독교윤리학과 선교학의 협업 작업이었다. 생태중심 사고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생태와의 상호동반적 관계를 제시하였고, 생산과 소비의 가치와 윤리성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독교 선교의 급속한 위축 상황에서, 아직도 막연한 개념으로 논의되기 쉬운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선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지능(CQ)이론을 제기하며 발달 방향을 모색하였다. COVID-19 팬더믹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다. 인간의 비윤리적 삶과 욕망에 기인한 삶에 대한 반성과 삶의 재정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동문. “이슬람 바로 알기 논의, 괴담 수준의 담론을 넘어서야 한다.” 〈이슬람포비아 실체를 진단한다〉(바른교회아카데미, 청어람아카데미 기획포럼). 2008. 12.10.

김창운. “다문화 사회에서 기독교의 선교신학적 방향: 상호문화적 변화.” 「선교신학」 25(2010), 287-316.

_____. “아브라함 설화 속에서 바라보는 상호문화적 변화 이야기: 다문화시대 기독교적 가치관 모색을 위하여.” 「선교와신학」 45(2015), 47-74.

박용범. “COVID-19 이후 창조 의식의 전환: 에고(Ego)에서 에코(Eco)로.” 「신학과사회」 34(2020), 129-159.

신경규. “세계화와 빈곤, 그리고 선교: AGAPE문서를 중심으로.” 「선교신학」 45(2017), 131-170

안명준 외. 『교회통찰-코로나.언택트.뉴노멀 시대 교회로 살아가기』. 서울:세움북스, 2020.

이신전. “문화지능이 이문화 적응, 해외 체류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014), 422-429.

이장형. “아미쉬 공동체의 윤리 분석: 기독교 종교성, 소비문화, 예배갱신, 평화론 모색.”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179-209.

_____. “세계화의 능동적 수용과 기독교적 책임-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15(2008), 31-55.

임덕규. 『COVID-19 바이러스와 그리스도 교회』.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임성빈. “다문화사회와 교회의 역할 모색- 인권과 문화통합을 위한 토대제공의 관점에서.”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305-333.

조용훈. “윤리적 소비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369~398.

한경구.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 『다문화사회의 이해』. 서울: 동녘, 2008.

한경구 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서울:일조각, 2006.

홍종열. “상호문화능력으로서 문화지능의 개념에 관한 고찰.” 「문화산업연구」 13(2013), 69-76.

www.kci.go.kr

황돈형. “부를 생산하는 경제적 활동의 기독교적 의미.”「한국조직신학논총」56 (2019), 223-267.

황미애 외.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생의 법적 관용성: 다문화 법교육에의 함의.”「시민교육연구」45-1(2013). 171-191.

홍종열.『문화지능이란 무엇인가』.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황을호.『대유행병과 기독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서울:생명의 말씀사(2020).

황홍렬.『한반도에서 평화선교의 길과 신학 - 화해로서의 선교』. 서울: 예영B&P, 2018.

Earley, P. Christopher, Tan, Joo-Seng, & Ang, Soon. *CQ : Developing Cultural Intelligence at Work.* 박수철 역.『CQ 문화지능 - 글로벌시대 새로운 환경을 위한 생존전략』. 서울;영림카디널, 2007.

G. E. Marrison, *The Christianity Approach to Islam,* 임흥빈 역.『기독교와 이슬람』. 서울:아세아신학사, 1991.

Livermore, David. *Leading with Cultural Intelligence: The Real Secrete to Success* 2nd Edit. 홍종열 역.『문화지능 CQ 리더십』. 경기 고양시:꿈꿀권리, 2017.

Livermore, David. *The Cultural Intelligence Difference*. 홍종열 역.『문화지능 CQ: 글로벌 소통의 기술』. 서울:꿈꿀권리, 2016.

Merchant, Carolyn. *Radical Ecology :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허남혁 역.『래디컬 에콜로지』. 서울:도서출판이후, 2007.

Peterson, Brooks. *Cultural Intelligence*. 현대경제연구원 역.『문화지능』서울:청림출판,2006.

Berry, John W..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Stackhouse, L. Max.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7.

Gates, Jr., Henry Louis. “Beyond the Culture Wars: Identities in Dialogue,” *Profession* (93), 1993,11.

Milanovic, Brano. “Two Faces of Globalization: Against Globalization as We Know It,” *World Development* Vol. 31, No4(London: Elsevier Science Ltd., 2003), 663-676.

www.kci.go.kr

Rogoff, Barbara. 1993. "Children's guided participation and participatory appropriation in sociocultural activity," In Robert H. Wozniak & Kurt W. Fischer, *Development in context: Acting and thinking in specific environments*, 121-15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93.

WCC 문서. "Report of WCC Consultation on Mission and Ecclesiology of the Migrant Churches, Utrecht, the Netherlands, 16-21 November 2010,"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100.1., 2011, pp.104-107.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제공.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20년 9월 20일에 최종 접속. 〈국내 이주민 현황〉

e-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0. 9.20 접속.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2020년 9월 30일 최종 접속.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0) 2020시행계획〉

e-여행신문 10월 1일 접속 〈입출입국 현황〉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01일
심사게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18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팬더믹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지구촌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교회 공동체 또한 실질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dl 논문은 세계화에 대한 급속한 회의적 시각에 대응하며 세계화와 지역화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윤리적 과제와 위기에 처한 선교적 상황에 대해 적실성 있는 선교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기독교윤리학과 선교학의 공동 논의 과정이었다. 생태중심 사고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생태와의 상호동반적 관계를 제시하였고, 생산과 소비의 가치와 윤리성 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독교 선교의 급속한 위축 상황에서, 아직도 막연한 개념으로 논의되기 쉬운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선교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지능(CQ)이론을 제기하며 발달 방향을 모색하였다. COVID-19 팬더믹 상황은 결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아니다. 인간의 비윤리적 삶과 욕망에 기인한 삶에 대한 반성과 삶의 재정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세계화, COVID-19, 다문화화, 생산과 소비, 문화지능, 상호문화적 가치

www.kci.go.kr